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하는 아빠, 보고 싶은 엄마! 한가위를 앞두고 더 친정어 그리워지던 차에 '가족사랑캠프 어머니 학교'에 참가해 이렇게 오랜만에 편지를 써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고생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고생과 가난을 부모 탓, 자식 탓, 세상 탓, 인생 탓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깨끗하게 노동을 견디시며 사랑으로 가정을 일구신 부모님. 언제나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단지 마음 아픈 건 알토란 같은 자식을 여덟이나 낳고 키우시느라 남들보다 빨리 위축되고 노쇠하신 부모님의 신체. 푸른 잎 무성하던 나무도 열매를 맺고 수확하고 나면, 잎이 누렇게 뜨고 이내 저리 떨어져 버리는 것을, 열매가 되어 다 큰 딸은 내내 그것이 걱정입니다.

자식 셋을 키우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건만, 제 자녀들은 매번 엄마 사랑을 더 받겠다고 서로 싸웁니다. 한데 엄마·아빠는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주셨길래 우리 여덟 남매가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고등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신 것도 아니신데, 가난과 행복을 분리해 그토록 가난했지만 이토록 행복한 가정은



정은진 소령
육군75사단

어떻게 일구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건 아마 천성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천성이 부단히 노력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두 분. 저는 그런 두 분의 천성을 닮아 세상을 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간절해서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꿈. 그것은 제가 자는 줄 알고 엄마와 아빠가 나누시던 그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당신과 나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어? 커서 뭐가 될런지?" 한 번도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가 돼라' 하지 않으셨는데, 자식의 성적표에 마냥 들뜨셔서 기대감에 찬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니

들보다 상대적으로 유약했던 저는 그 후 누구보다 즐겁고 보람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의 군 복무도 그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아빠 연세가 칠순. 앞으로 20년을 더 사신다 해도 제주도를 일 년에 두세 번밖에 못 찾아뵙는 저로서는 애가 타네요. 앞으로 아빠 얼굴을 50번밖에 못 본다 생각하니... 힘드시겠지만, 이제 담배도 끊으시고 입맛 없으셔도 식사 잘 챙겨 드셔서 제발 오래오래 사세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뭐가 되는지' 보셔야 하잖아요.

아빠 턱의 까슬까슬한 턱수염이 좋습니다. 구린내 나는 아빠 발가락도 좋습니다. 윗트 있는 농담과 진실 어린 격려, 드라마 보시며 눈물짓는 여린 감수성도요. 엄마의 입가 주름이 좋습니다. 세상 떠나갈 듯 큰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좋습니다. 힘과 강단, 순진하고 정직한 마음, 보람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요.

엄마·아빠의 딸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서 열심히 잘 지내다 행복하게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간부의 자세와 역할



나국엽 중사
육군701특공연대

198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용사들은 사고와 행동이 자유분방하며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익숙하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기보다는 임무의 목적과 의미를 공부함으로써 내면으로부터 자발적인 동기가 우리나라에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용사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간부의 자세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간부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켜 용사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그들의 능력이나 인품이 완성체가 되도록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은 자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고 말겠다는 굳은 각오를 해야 하며, 훌륭한 부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칙을 먼저 깨치고 용사들을 가르쳐야 한다. 필자가 군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간부의 자세와 역할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용사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간부는 용사의 역량을 집단과 조직 전체 차원에서 개발시켜 나가야 한다. 용사의 재능과 잠재력을 끌어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현재 및 차후 직책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것은 간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관심과 정성 어린 지도는 용사를 조기에 적응시켜 전투력을 향상하는 원동력이 되며 자율적·창의적·주도적인 임무수행을 가능케 한다. 적극적인 독서 권장, 자격증 취득, 주특기 분야 조기 성과달성 등이 좋은 예다.

둘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간부에 의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전시 적절한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제반 부대 활동 시에도 용사들이 어려움 없이 임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만일 명확한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간부와 용사 간에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요구돼 판단과 결심이 지연되며 부대가 요구하는 목표달성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셋째, 간부와 용사 간에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완벽한 임무수행이란 결과를 창출하려면 간부와 용사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와 인간적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속한 조직의 용사는 틀림없이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 간부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간부가 내 부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교범 탐독을 통한 교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열린 의사소통, 존중과 배려의 문화 형성, 법과 규정에 따른 부대 지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간부는 부대의 근간이며 용사는 그 근간을 이루는 토대다. 간부가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사들을 지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부대를 육성할 수 있다.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간부들이 용사들을 똑바로 지도하지 못한다면, 전투 패배는 물론 용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필자가 제시한 용사의 역량을 개발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궁극적으로 간부와 용사 간에 신뢰를 형성하여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아도 반드시 완수하는 장병으로 거듭나 보자.

누구나 '그릿(Grit)' 정신이 필요하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당시 학교장이셨던 정진경 장군님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하셨고 모든 생도에게 실천하기를 강조한 것이 바로 '그릿(Grit) 정신'이었다. 이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 앤절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생도들의 훈련 과정을 예로 들며 그릿 정신을 설명한다. 선천적인 재능 혹은 천재성보다 목표 지향적인 정신, 포기하지 않는 끈기 혹은 투지가 성공과 더욱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그릿 정신을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신입 소대장인 필자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다. 저자가 제시한 수많은 개념 중에서 '회복탄력성'과 '목표 지향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필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다.

먼저 회복탄력성이란 크고 작은 역경을 마주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 그 시련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야전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장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기



박지석 소위
육군35사단 부안대대

관을 빼고 군 경험이 극히 드문 필자 또한 야전에서 마주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이는 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입장교가 전일 초기에 공통으로 경험하는 역경일 것이다.

누군가는 그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임무 수행 능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 반면 누군가는 그 역경을 발판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이를 지켜나가면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 두 선택지 중에 고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쉽게 생각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신념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목표 지향성이다. 학창 시절 꿈을 이루는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그 목표가 그저 목표에 그칠지 혹은 현실로 이루어져 더 큰 목표를 세우게 될지는 그 사람의 몫이다.

필자는 해안 경계작전을 담당하는 소대장으로서 두 가지 목표를 취임사에서 밝혔다. 첫째, 어떤 일이든 소대원과 함께하겠다. 둘째, 소대원과 함께할 때 반드시 술선수범하겠다. 해안 소대장으로 서수색작전·매복작전·해안기동타격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때 소대원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함께하고 술선수범함으로써 소대원들이 자연스레 소대장을 따르게 되는 소대, 전시 상황이 됐을 때 소대장의 지시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대를 만드는 것이 필자의 목표다. 부대원 모두가 끈기와 열정을 갖고 임무 수행에 임한다면 육군에서 지향하는 필승의 신념 혹은 임전무퇴의 기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알림

"진중문고, 같이 읽어요"

'진중문고+' 코너 신설

1년에 네 번씩,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를 열어 간간하게 고른 50여 권의 새 책이 병영도서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방일보는 장병 정서 함양과 교양 증진을 위해 8월부터 '진중문고+'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진중문고를 읽고 쓴 독후감을 보내주세요. 1차 대상은 2019년 보급한 36권입니다. 도서목록은 국방홍보원 누리집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독후감 게재 장병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치킨세트 기프티콘을 보내 드립니다.

- 응모방법: 병영의 창 응모 양식 이용해 이메일로 제출(부대 정훈 계통 진행 필수)
- 이메일 주소: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 문의: (군) 947-3735, (일반) 02-2079-3735